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61

metroseoul.co.kr

metro®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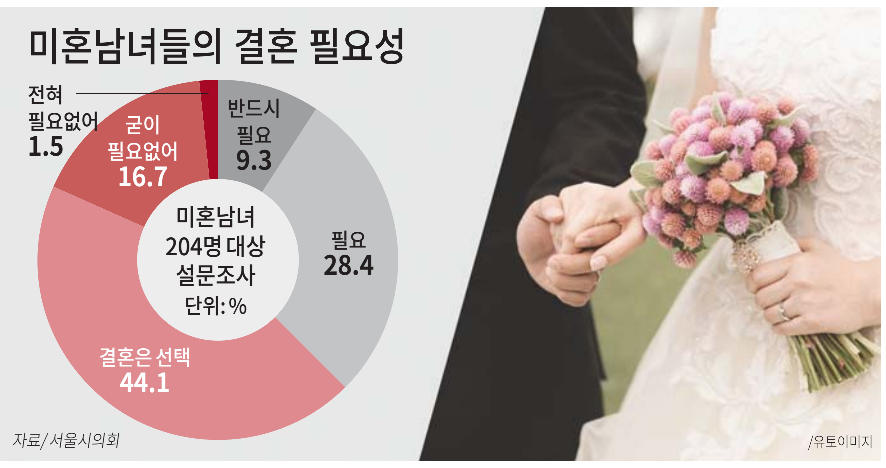
제5485호 2024년 8월 1일 목요일

커피시장에 부는 디카페인 바람 "맛·건강 챙겨요" L1

에이피알 상반기 실적 역대 최대 L2

400조 쏟아부어도 저출생… "결혼·출산 긍정문화 만들어야"

서울시의회, 저출생 대응 보고서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 필요
성평등 사회 구축해 불이익 없애야



/유토이미지

경제적 지원으로 출산율 반등을 꾀하는 정책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회 구성원 전원이 결혼과 출산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3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사단법인 한국난임가족연합회에 의뢰해 마련한 '서울시 저출생 대응 정책개발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보고서는 "출산 축하금 일시 지급, 임·출산 관련 진료비 지원, 영아양육수당 등 대부분의 저출산 관련 정부 정책은 임신·출산·육아를 중심으로 시행돼 왔다. 그러나 400조원 이상의 재정을 지원 정책에 쏟아 부었음에도 출산율은 지속 감소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저출생 대책의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결혼한 부부의 출산을 정상으로 간주하는 우리나라의 문화에서 결혼하는 커플의 증가 없이 출산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면서 "혼인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경제적 지원은 결혼할 대상자가 있는 경우엔 효과적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진이 전국의 미혼남녀 204명을 대상으로 벌인 출산의지 관련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44.1%가 '결혼은 선택이다'고 답했다. '결혼은 필요하다'(28.4%), '결혼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16.7%), '인생에서 결혼은 꼭 필요하다'(9.3%), '인생에서 결혼은 필요하지 않다'(1.5%)가 뒤를 이었다.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의 31.4%가 '자녀는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자녀가 필요하지 않다'는 24.5%, '그저 그렇다'는 17.2%, '자녀는 꼭 필요하다'는 10.3%,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8.8%, '자녀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7.8%였다.

자녀계획이 없다고 한 이들은 '경제적 부담이 있어서'(31.9%),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싶어서'(18.6%), '일과 병행이 어려워서'(14.7%), '미래사회에 대한 불안감'(12.3%), '아이 양육에 자신이 없어서'(11.8%)를 사유로 꼽았다.

연구진은 "공정한 성평등 사회를 구축해 결혼 및 임·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증가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 독박육아, 직장에서 승진 누락 등 일상생활 속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문화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오세훈, 베이징 시장과 회담… 교류확대 약속

도시 문제 해결 위한 교류의 장 열어
오세훈 "미래지향적 관계 이어가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7월 30일 오후(현지 시각) 베이징시 인민정부청사에서 인용 베이징시장을 만나 미래지향적 교류 방안을 모색했다. /서울시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30일 오후 5시 15분(현지 시각) 베이징시 인민정부청사에서 인용 베이징시장을 만나 경제 등 시민 삶과 밀접한 분야에서 교류 확대를 약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오 시장은 "그동안 양 도시는 경제·문화·관광·인적 교류 등 전 분야에서 활발히 협력해온 동반자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미래지향적 관계를 이어나가자"고 말했다.

이번 면담에서 두 시장은 대도시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교류의 장을 열고, 우수 정책 공유 기회를 확대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청소년과 청년 교류 강화를 통해 양국의 미래세대가 서로의 문화와 사회를 이해하는 분위기를 조성, 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기반 마련에도 힘을 합치기로 했다.

오 시장은 "미래에도 동북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는 파트너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경남도 산하 14개 공공기관 정규직 통합채용

내년부터 상·하반기 각 1회 채용

경남도는 도 산하 14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직원을 내년부터 통합채용한다고 31일 밝혔다.

통합채용 기관은 경남개발공사, ㈜경남무역,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경남테크노파크, 경남로봇랜드재단, 경남신용보증재단,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경남람사르환경재단, 경남사회서비스원, 경남관광재단, 경남여성가족재단,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경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마산의료원이다. 연구인력 중심 기관인 경남연구원, 항노화연구원은 제외됐다.

그동안 도내 공공기관별 채용 시기, 절차 등이 상이해 응시자가 한눈에 채용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웠고, 공공기관별로 채용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과도한 예산이 소요되는 점 등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경남도는 공공기관 통합채용을 통해 공공기관별 채용 절차 등 기준체계를 마련하고, 시험의 공정성과 경제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통합채용의 주요 내용을 보면 채용 시기가 매년 상·하반기 각 1회로 정례화되고, 경남도 주관으로 통합공고, 원서접수 및 필기시험을 거친 뒤, 공공기관 주관으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시행하게 된다. 필기시험 문제는 공통과목인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직업기초능력평가와 채용직종에 따른 전공과목으로 치러지고, 총 100문항 출제에 시험시간은 100분이다.

/창원(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성남시 뷰티기업, 베트남 1525만 달러 성과

'베트남 코스모뷰티&비엣뷰티쇼'
총 257건 수출상담 실적 달성

성남시는 지난 7월 25일부터 3일간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린 '베트남 코스모뷰티&비엣 뷰티쇼'에 관내 기업을 파견해 1525만 달러(약 211억원)수출 상담 성과를 기록했다고 31일 밝혔다.

베트남 코스모뷰티&비엣 뷰티쇼는 15회차를 맞는 베트남 최대 규모의 뷰티 무역박람회로, 동남아권 시장 진출의 주요 관문이다.

성남시 참가기업은 ▲미러로이드(스마트미러) ▲미네랄하우스(스킨케어) ▲센스코(스킨케어) ▲아이코스랩(스킨케어) ▲아마로스(기능성화장품) ▲아멍코스메틱(스킨케어) ▲셀바이셀(스킨케어) ▲브에노메디텍(스킨케어) 8개사이다.

이들 기업은 현지 바이어와 전문 벤더사 등을 박람회 현장에서 직접 만나 총 257건, 상담액 1525만 달러의 수출 상담 실적을 달성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내 중소기업의 제품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사업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남(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서울형 빅데이터 구축 시장·골목상권 활성화

서울시는 '서울형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구축 사업을 위한 5개 시범 자치구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이 모델은 서울시내 25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모델을 표준화해 정책이나 사업 시행에 활용할 수 있게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시는 '축제·행사 성과분석 모델'과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모델' 2가지를 구축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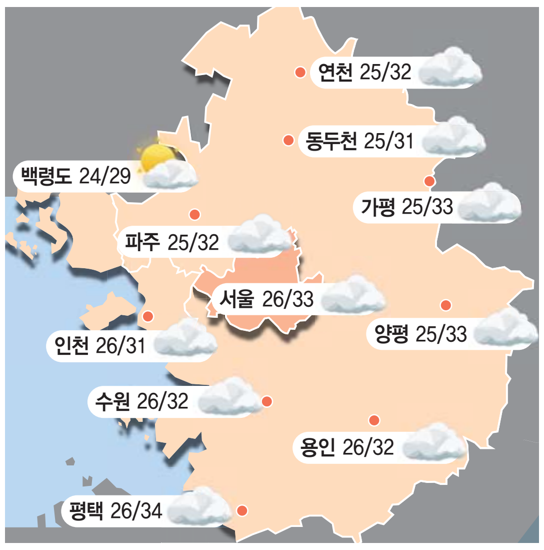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뜸 / 05:36 | 해짐 / 19:40

8월 1일 (木)
음력 : 6월 27일

수도권 날씨 26~33℃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버스티비 yap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美국무 부장관 "중러, 각자 이익 추구…北영향력 경쟁"
▲해리스, 보복공습한 이스라엘에 "방어할 권리 있다" /사진 뉴시스

▲트럼프 며느리 "해리스는 쓰레기 봉지 모조품" 인신공격
▲EU, 부정선거 의혹 베네수엘라에 투명성 요구…"제재는 시기상조"

▲러시아, 베네수엘라 부정 대선 논란에 "패자는 결과 수용하라" /사진 뉴시스
▲일본 정부, 전기·가스 보조 8월부터 재개…여당에서도 재정 부담 우려